살인진드기 기피제 보급 시작

장수, 7개 읍면 전세대 보급
감염병 긴급 대응비용 확보
"치료법無 안 물리는게 최선"

장수군(군수 장영수)은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7개 읍·면 전세대(1만1,160세대)에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내 진드기매개감염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이 확산되면서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감염병 긴급대응(재난기금활용) 4,300만원을 확보해 기피제와 기피제자동분사기를 구입했으며, 주민들이 주로 찾는 등산로(와룡. 방화동 휴양림) 입구에도 기피제 자동분사기 2대를 설치하고 기피제는 8월말까지 배부 할 계획이다.

전 세대에 진드기 기피제가 보급이 되는 만큼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야외 활동 후 고열, 구토, 설사, 전신 근육통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최근 많은 환자가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살인진드기)은 야생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참진드기가 매개해 발생하는 것으로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 소화기증상, 혈소판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현재까지는 예방백신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3곳 선정

진안 원가막마을 등 현판 전달
불법소각행위 근절 앞장서

진안군은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한 '2018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상전 원가막마을, 백운 미비마을, 주천 안정마을 3개 마을이 선정돼 현판을 전달했다.

진안군은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한 '2018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상전 원가막마을, 백운 미비마을, 주천 안정마을 3개 마을이 선정돼 현판을 전달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매년 산림청이 논·밭두렁에 농업부산물과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 안하기로 서약하고 산불 기간 중 불법으로 소각한 사실이 없는 마을 중에서 산불발생 감소에 기여한 마을을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마을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농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방지에 노력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색마을 서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안군은 전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에 참여해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인 하반기 창업보육학교 신청 접수

진안군 귀농귀촌인협의회에서 관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안정적 정착 강화를 위한 하반기 창업보육학교 과정을 진행한다.

창업보육학교는 '팜파티(Farm Party) 과정과 상품 연출 브랜딩'을 주제로 9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팜파티(Farm Party)는 농장주가 파티의 호스트가 돼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참가자들이 잠재적인 고객이 되게 하고 농촌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국내 1호 팜파티 플래너인 이승현 강사를 초청해 팜파티의 이해와 실천전략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상품의 장점을 부각시켜 고객의 눈에 띄도록 하는 공간연출 스타일링, 농산물 홍보 디스플레이 과정 및 푸드 스타일링 등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교육이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며 진안군 귀농귀촌협의회(진안군마을만들기센터 내 위치)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교육 참가비는 2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창업보육학교 운영을 통해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만남과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063-433-0245)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지난 22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군수와 함께하는 부서 및 읍·면 담당 간담회를 가졌다.

"움직이는 자치행정 실현 힘모아"

무주군 6급 리더 간담회
120여명 애로사항 공유

무주군은 지난 22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군수와 함께하는 부서 및 읍·면 담당(6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섬김과 신뢰행정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6급 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해 '군수와의 대화, 애로사항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조직의 올바른 성장은 중간관리자, 조직의 중요한 허리를 담당하는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과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진정으로 무주를 위하고 군민을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반드시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선 7기 무주군에서는 황인홍 군수는 취임 이후 '움직이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열린 군수실 운영(매주 둘째, 넷째 주 수요일 10:00~12:00)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반딧불 소리함을 설치(읍면 주민자치센터 등 11곳)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주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순항

2021년까지 총 55억원 투입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진안군은 지난 22일 주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천면사무소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 기본계획에서 최종 논의된 사항을 공유하고 추후 발주될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위원, 지역주민, 지역 관계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016년 9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기간 동안 8차례의 회의와 주민의견 수렴, 선진사례 견학,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결정했다.

최종 결정된 시설사업은 △북적북적 화합의 마당 조성, △건강도서관 조성 △교통환경 취약공간 개선. △간판 및 입면정비, △가로경관정비(중심가로 및 마을경관개선)이다. 지역량강화사업(s/w)은 △인재 발굴,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마을경영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만춘 추진위원장은 "주민, 행정, 전문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지역상생의 방향으로 주천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연결하고, 농촌 공동체 활동 거점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실시설계용역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사가 완공되는 날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장수,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위촉식 개최

장수군은 23일 민선7기 100개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위촉식과 1차 심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7월말부터 2주간 군민배심원을 모집을 통해 배심원 20명, 자문위원 6명을 선정했다.

군민배심원단은 농림/축산/소득, 경제/지역개발 등 5개 분임으로 구성됐으며, 배심원의 임기는 2년이다.

배심원단은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도 점검과 행정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실천계획의 수정·보완·변경사항 심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약의 사업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한 실질적 내용 달성 여부를 중점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이날 위촉식 및 1차심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공약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약 실천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받고 공약 이행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푸트마켓 시설지원 협약

진안군은 K-Water 용담지사,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와 23일 푸드마켓 시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진안군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Water 용담지사에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 푸드마켓 설치 비용 25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푸드마켓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기관 간 역할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푸드마켓은 기부된 물품이나 식품을 판매점 형태의 매장에서 이용자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오는 12월 오픈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채봉근 용담댐지사장은 "푸드마켓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진안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상모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진안군과 K-Water 용담지사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푸드마켓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푸드마켓을 잘 운영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